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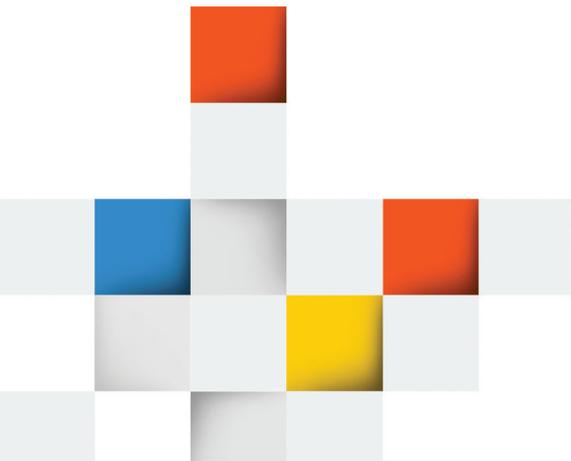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마약류 오·남용 실태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확산 등의 원인으로 마약류범죄 단속인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2014년 9,98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점차 마약과 대마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행위유형 면에서는 공금행위, 투약행위, 소지행위의 순으로 많은데, 최근 10년간 공금사범, 그중에서도 밀경(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함)과 밀수행위가 크게 증가했다.
- 마약류사범은 6~8월 사이에 약 1/3이 단속되고, 인천·경기, 서울, 대구·경북 단속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
-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 마약류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마약류사범 여성비율은 32.3%로, 특히 마약사범은 양귀비재배로 인해 여성비율이 높다.
- 2010년대 이후 폭력조직이 영리목적 등으로 마약류를 밀수·밀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 환각성 물질 흡입사범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기간에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대가 58.3%로 가장 많기는 하나, 30~50대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최근 10년간 약물로 인한 사망자는 2.2배 늘었는데, 특히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는 3.8배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narcotics)를 1) 약물사용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2) 약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3) 중단 시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4)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마약류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의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대마, 그리고 그 원료물질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 마약류범죄란 마약, 향정, 대마를 투약하거나, 유통 혹은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메타돈, 펜타닐 등이 포함되며, 향정에는 메트암페타민, MDMA, LSD, 날부핀, 텍스트로메토르판, 펜플루라민, GHB, YABA, 프로토콜 등이 있고, 대마에는 대마초, 해시시 등이 포함된다.

최근 연예인 마약 사건,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사건 등이 보도되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직장인, 학생 등 일반 국민들의 마약사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약물로 인한 사망이나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 역시 증가하는 추세

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마약류범죄 및 환각성 물질 흡입 발생특성과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약류범죄 단속 현황과 특성

마약류범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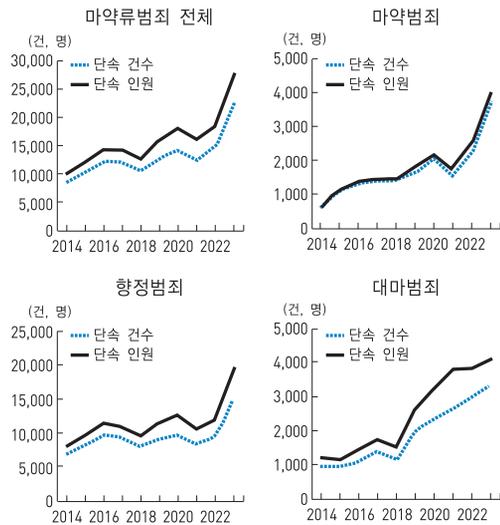
전체 마약류사범은 1999년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2002년 10개 필로폰 밀수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 2003~2006년에는 7,000명 대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에는 마약류사범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그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마약류범죄 단속인원과 단속건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그 원인 중 하나는 최근 인터넷(다크웹), 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의 접촉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마약류사범은 2014년 9,98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무려 2.8배가량 증가했고, 단속 건수 역시 같은 기간 8,648건에서 2만 2,300여 건으로 2.6배가량 늘었다(그림 X-18).

모든 마약류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마약사범과 향정사범의 증가폭이 대마사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마약사범은 2010~

2014년까지 연간 700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23년에는 3,970명까지 늘어났는데, 2014년 676명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10년간 5.9배 증가한 셈이다. 향정사범은 2016년에 처음으로 1만 명에 도달하였고 2023년에는 1만 9,55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최근 10년간 약 2.4배 증가했다. 대마사범은 2019년 최초로 2,000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1,187명에서 4,085명으로 3.4배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캐나다 등의 대마합법화 추세에 따라 여행자, 유학생 등이 대마관련 제품을 밀수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이유가 있다(그림 X-18).

[그림 X-18] 마약류범죄 단속 건수 및 인원, 2014-2023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5;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마약류범죄 유형별 단속 현황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히로뽕)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점차 마약과 대마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4년에는 향정사범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81.3%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70.8%로 감소하였다. 마약사범은 2014년 6,8%에서 2023년 14.4%로, 대마사범은 같은 기간 11.9%에서 14.8%로 비율이 증가했다(그림 X-19).

[그림 X-19] 마약류사범의 마약류별 구성비,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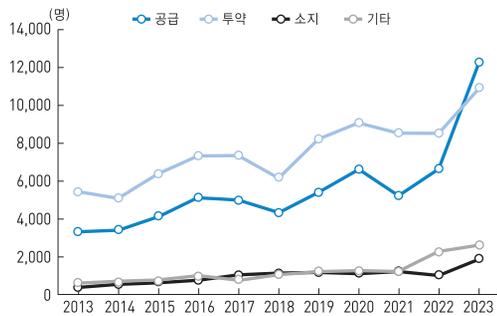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마약류범죄는 행위유형에 따라 공급사범(밀조(제조), 밀수(수입), 밀매(판매), 밀경(재배)), 투약사범, 소지사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각 행위유형별 구성비 평균값을 보면, 투약 49.8%, 공급 35.8%, 기타 행위 7.9%, 소지 6.6%의 순이다. 전체 마약류사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투약사범은 2014년 5,082명에서 2023년 1만 899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공급사

범은 같은 기간 3,416명에서 1만 2,226명으로 약 3.6배 늘어났는데, 밀조행위를 제외한 공급행위가 모두 증가했고 특히 밀경과 밀수는 2014년 대비 각각 6.3배, 3.2배 증가했다. 소지사범은 2014년 554명에서 2023년 1,859명으로 약 3.4배 늘었다(그림 X-20).

[그림 X-20] 마약류범죄 행위유형별 단속인원,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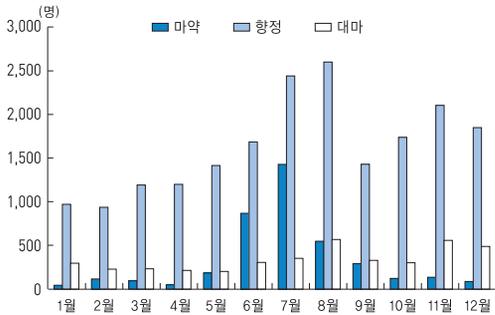


주: 1) 공급범죄는 마약류의 밀조, 밀수, 밀매, 밀경을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마약류범죄 단속 및 처분 특성

단속된 마약류사범의 월별 인원은 2023년을 기준으로, 7월이 가장 많았고(15.3%), 다음으로 8월(13.5%), 6월(10.4%), 11월(10.1%)의 순이다. 즉, 마약류사범은 6~8월에 한 해의 약 39%가 단속되는 셈이다. 마약류별로 보면, 향정사범은 7월, 8월, 11월, 대마사범은 8월, 11월 12월에 단속인원이 많은 반면, 마약사범의 경우 양귀비(양귀비)재배 단속이 주로 이루어지는 6~7월에 단속인원이 많다(그림 X-21).

[그림 X-21] 월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 2023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3.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서울, 대구·경북의 단속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2023년 인천·경기 지역에서 전체 마약류사범의 30.7%(8,469명)이 단속되었고, 서울 지역

<표 X-3>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 2019-2023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6,044	18,050	16,153	18,395	27,611
서울	3,607	4,015	4,044	4,640	6,271
인천·경기	4,931	5,555	5,407	5,559	8,469
부산	935	1,191	880	1,159	1,960
울산·경남	1,156	1,278	988	1,215	1,860
대구·경북	1,193	1,320	1,015	1,279	2,255
대전·충남	923	1,112	932	1,042	1,519
강원	538	465	351	559	999
전북	226	274	204	274	413
광주·전남	468	751	715	778	1,505
충북	419	455	370	526	683
제주	89	93	75	113	198
외국	61	107	16	25	37
불상	1,498	1,434	1,156	1,226	1,442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은 22.7%(6,271명), 대구·경북 지역은 8.2%(2,255명)이 단속되었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과 부산의 점유율은 각각 2.5%p, 1.3%p 증가한 반면, 울산·경남과 대전·충남의 점유율은 각각 0.5%p,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X-3).

최근 3년간의 마약류 압수량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투약 혹은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를 알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마약은 양귀비, 생아

<표 X-4> 마약류별 압수량, 2021-2023

구분	2021	2022	2023	
마약	양귀비	114,667주	118,420주	163,999주
	생아편	8g	0g	0g
	헤로인	1,213g	36g	1,362g
	코카인	435,741g	261g	11,672g
	기타 ¹⁾	2,267g	2,267g	3,119g
향정	메트암페타민	569,866g	175,351g	405,002g
	MDMA	11,894g	42,180g	42,179g
	YABA	50,137g	167,602g	210,812g
	LSD	52g	48g	2,333g
	JWH-018 및 그 유사체	18,747g	55,693g	40,987g
	기타 ²⁾	76,375g	175,308g	122,049g
대마	대마	3,429주	1,078주	11,957주
	대마초	91,240g	79,300g	114,155g
	대마종자	922g	1,557g	620g
	대마수지(해시시)	145g	1,413g	3,184g
	기타 ³⁾	36,945g	103,501g	40,542g

주: 1) 기타: 양귀비종자,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등.

2) 기타: 지에이치비(GHB), 졸피뎀, 알프라졸람, 프로포폴, 알킬 니트리트류(isobutyl nitrite 등), 페노바르비탈, 케타민(Ketamine), 사일로신(Psilocyn), 암페타민 등.

3) 기타: 대마오일, 대마카트리지, 대마쿠키, 대마캐러멜, 대마젤리, 대마크림, 대마캔디 등 대마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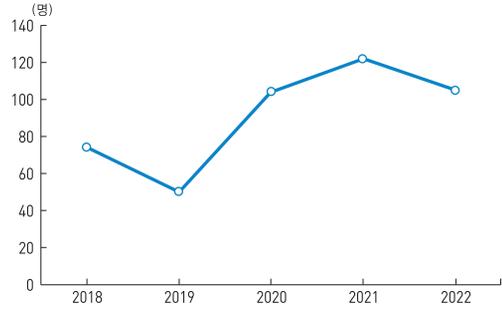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편, 헤로인, 코카인이다. 향정물질 중에는 메트암페타민, MDMA, YABA, LSD, JWH-018 및 유사체가 있고, 대표적으로 2021년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 900g을 제조한 사례, 2022년 음식점 지하창고에서 감기약과 질산암모늄, 수산화나트륨 등을 다량 구입하여 메트암페타민 8g을 제조한 사례가 있다. 대마류로는 대마, 대마초, 대마종자, 대마수지(해시시)가 주로 투약 혹은 유통된다. 2021년 3월에는 상가건물 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 매매 정보를 광고한 후, 대마 약 82g(가액 약 1,060만 원)을 매매하고 1,868g을 보관한 마약사범이 구속된 경우가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다크웹을 활용한 판매를 목적으로 한 대마재배 사건이 단속되고 있다(표 X-4).

최근 마약류범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마약류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 MDMA, LSD, 펜터민, 펜타닐, 졸피렘, 펜디메트라진, 대마초 등을 판매, 유통한 사건을 단속하고 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단속현황을 보면, 2018년 74명에서 2021년 122명까지 늘었고, 2022년에는 전년대비 13.9% 감소한 105명이 단속되었다(그림 X-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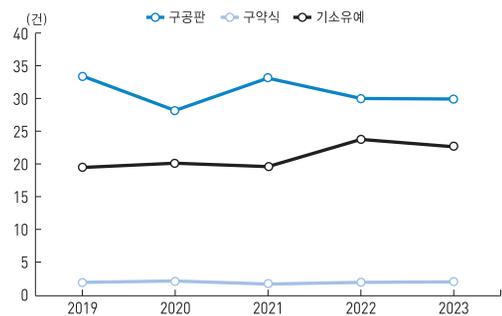
[그림 X-22]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인원 2018-2022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마약류범죄에 대해 엄벌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2023년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내역은 구공판율(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비율)이 평균 30.9%로 가장 높다. 다만 기소유예 비율이 2019년 19.5%에서 2023년 22.7%로 증가했고, 구약식율(법원

[그림 X-23]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건수, 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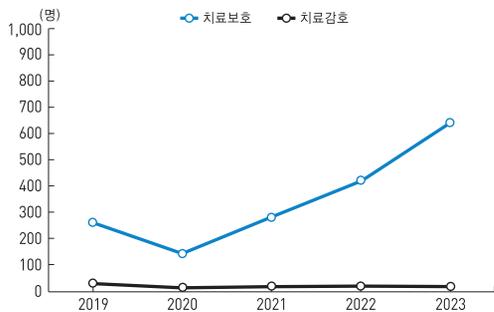
- 주: 1) 구공판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함을 의미함.
 2) 구약식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재판을 청구함을 의미함.
 3)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임.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에 약식재판을 청구한 비율)은 1.9%에서 2.0%로 소폭 증가한 반면, 구공판율은 33.4%에서 29.9%로 줄었다. 이는 검찰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그림 X-23).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치료보호는 입원치로나 외래치료를 통하여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2021년 이전 280명 이하를 유지하다가, 2022년 421명, 2023년 64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 결정에 의해 마약류 투약사범을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로, 2019년 30명에서 2023년 19명으로 줄었다(그림 X-24).

[그림 X-24]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인원, 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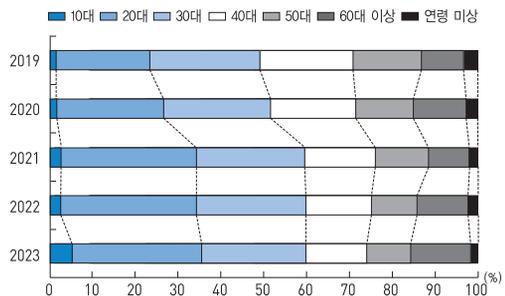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마약류사범 특성

마약류사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사범은 10대, 20대 비율은 2019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20대 비율이 31.4%로 30대 비율(25.4%)을 넘어섰다. 반면, 40대와 50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40대가 21.7%, 50대가 15.9%를 차지했으며 2023년에는 각각 14.2%, 10.3%가 되었다(그림 X-25).

[그림 X-25] 마약류사범 연령별 구성비, 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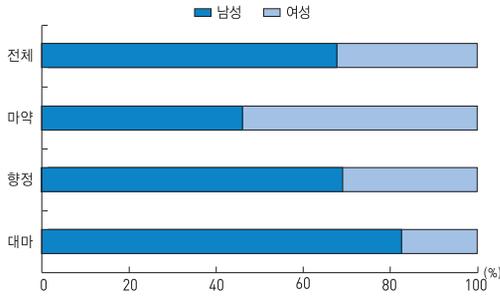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2023년 단속된 전체 마약류사범 중 남성은 67.7%이고, 여성은 32.3%다. 마약류 유형에 따라 성별 비율이 상이한데, 대마사범의 경우 여성 범죄자 비율이 17.4%로 가장 낮고, 향정사범의 여성범은 31.0%이다. 반면, 마약사범의 경우 여성들이 주로 앵숙 재배로 단속되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54.0%로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X-26).



[그림 X-26] 마약류사범 성별 구성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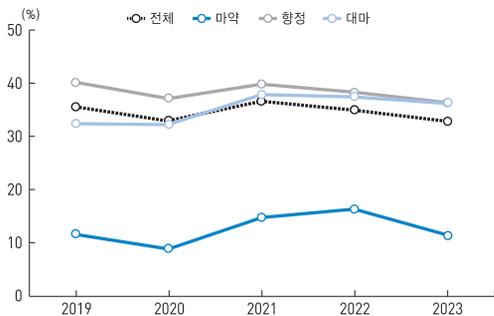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3.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 특성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자 비율은 2023년 기준 32.8%로 최근 5년 동안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정, 대마, 마약 사범 모두 재범자보다 초범이 많기는 하나,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 비율이 훨씬 높아 상대적으로 범죄경력이 적다.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의 재범자 비율은 5년 평균

[그림 X-27] 마약류사범 재범자 비율, 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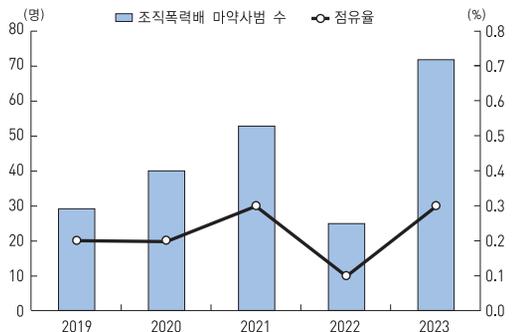


주: 1) 재범자 비율은 단속인원 중 재범자(마약류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의 비율을 말함.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각각 38.3%와 35.2%인 반면, 마약사범은 12.5%이다(그림 X-27).

미국의 마피아나 일본 야쿠자, 중국 삼합회 등 주요 해외 폭력조직의 경우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가 마약류 유통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폭력조직이 마약류범죄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국내 폭력조직이 조직유지 및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밀수 밀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2019년 21개파 29명, 2020년 29개파 40명, 2021년도 29개파 53명, 2022년 18개파 25명, 그리고 2023년에는 35개파 72명이 마약류범죄에 연루되어 적발되었다. 다만 전체 마약류사범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추이에선 2019년 0.2%에서 2023년 0.3%로 낮은 수준에서 대동소이했다(그림 X-28).

[그림 X-28]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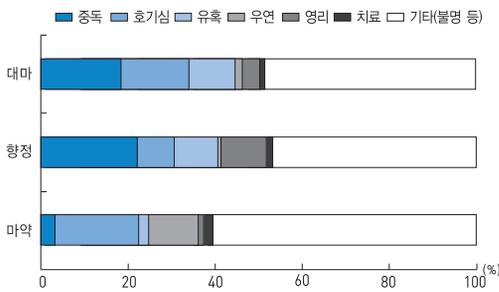


주: 1) 점유율은 전체 마약사범 중 조직폭력배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마약류범죄 특성

마약류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에서 분류한 범죄원인별 분석 결과를 통해 개략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향정사범은 기타 원인을 제외하면 중독문제가 범죄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22.0%), 영리목적(10.5%), 유혹(10.0%)의 순이지만,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앵속재배)이 많기 때문에 중독문제가 범죄원인인 경우는 매우 낮고(3.1%), 호기심(19.2%), 우연(11.5%)이 주된 원인이다. 대마사범은 중독(18.4%), 호기심(15.6%), 유혹(10.5%)의 순이다(그림 X-29).

[그림 X-29]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구성비, 2023



주: 1) 범죄원인 중 강압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0.1% 미만이므로 기타에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3.

마약류범죄의 범행장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기타 장소를 제외하면,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28.8%), 노상(12.8%), 숙박업소(9.3%), 유흥업소(4.0%), 자동차(2.7%), 공항

(2.5%)의 순이다. 향정의 경우 가정집(24.7%)과 노상(13.4%)의 비율이 높았고, 대마 역시 가정집(24.7%)과 노상(17.6%)의 비율이 높다. 마약의 경우 가정집(54.6%), 농가·축사(7.4%), 농경지(6.2%) 등 앵속재배와 관련된 장소에서 많이 발생한다(표 X-5).

<표 X-5> 마약류 범행장소별 구성비, 2023

	전체 (%)	마약 (%)	향정 (%)	대마 (%)
가정집	28.8	54.6	24.7	24.7
노상	12.8	5.2	13.4	17.6
숙박업소	9.3	1.0	11.8	4.2
유흥업소	4.0	0.4	5.1	2.2
자동차	2.7	0.4	3.1	3.0
공항	2.5	0.6	2.6	3.8
사무실	1.6	1.3	1.7	1.1
농가·축사	1.2	7.4	0.1	0.7
농경지	0.9	6.2	0.0	0.3
기타 ¹⁾	36.2	23.0	37.5	4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타는 선박, 야산, 부두, 항공기, 강변, 해변가, 공장, 상가, 불명, 기타를 포함한 값임.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3.

환각성 물질 흡입 현황

환각성 물질 흡입사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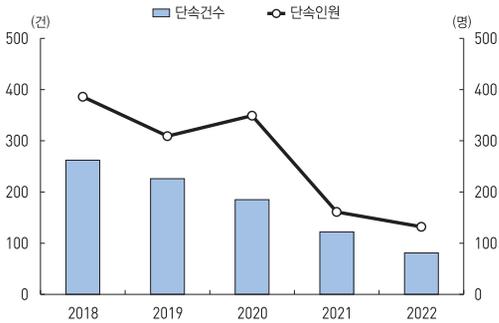
환각성 물질은 마약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매우 심각하고, 향후 마약류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는 흡입사범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환각성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환각성 물질에는 1)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2) 이러한 물질이 들



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를 포함된다.

20~30대를 중심으로 풍선에 아산화질소 기체를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급속히 확산되어 일명 '해피벌룬'으로 사회적 쟁점이 된 바 있으나, 전반적으로 환각성 물질 흡입사범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다. 2018년 386명이 단속되었으나, 2022년에는 132명으로 65.8% 감소하였다. 단속 건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62건에서 81건으로 크게 줄었다(그림 X-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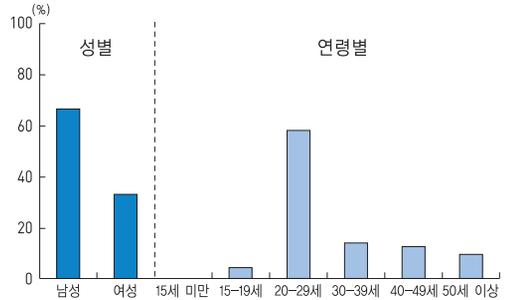
[그림 X-30] 환각성 물질 흡입사범 단속건수 및 단속인원, 2018-2022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환각성 물질 흡입사범 역시 남성 비율(66.7%)이 여성(33.3%)에 비해 높았다. 연령 면에서는 20대가 5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14.4%), 40대(12.9%), 50세 이상(9.8%), 15~19세(4.5%)의 순이다. 환각성 물질 흡입행위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의 문제이기도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X-31).

[그림 X-31] 환각성 물질 흡입사범의 성 및 연령별 구성, 2022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2.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조사는 청소년들의 환각성 물질 이용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청소년들 중에서 지난 1년간 환각성 물질을 사용한 비율은 2016년 0.4%, 2018년

[그림 X-32] 환각성 물질 사용 청소년 비율, 2016-2020



주: 1)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청소년 중 환각성 물질을 사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임.

2) 환각성 물질이란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켜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부탄가스, 본드, 마약류(허브마약 등) 등이 포함됨.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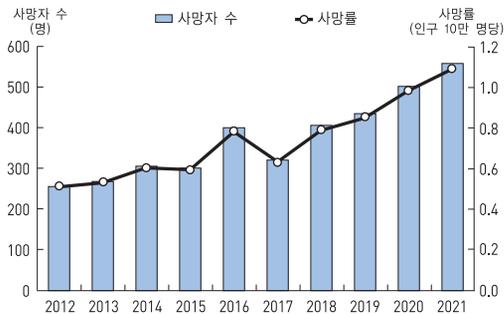
0.3%, 2020년 0.4%로 뚜렷한 변동 없이 유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그림 X-32).

약물로 인한 사망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전 세계인구 중 약물 문제를 이유로 35만 명이 직접 사망하고, 간접적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도 11.4만 명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약물 중에서도 특히 마약류로 인한 사망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이나 수술 등 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약류로 인한 사망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약물로 인한 사망자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2년 255명에서 2021년 559명으로 2.2배 늘었다. 2021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1.09명이 약물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그림 X-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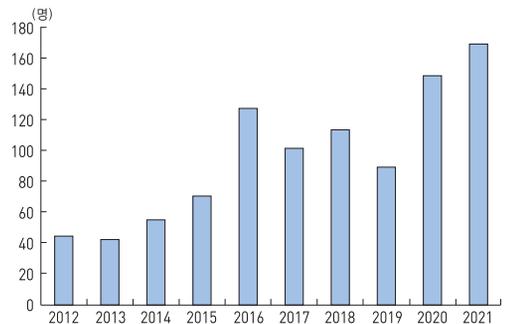
[그림 X-33]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012-2021



출처: 통계개발원, 「약물로 인한 사망통계 분석」, 2023.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 역시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2년 사망자 수는 44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69명으로 3.8배 증가하였다. 수면제, 벤조다이아제핀,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데, 특히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와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X-34).

[그림 X-34]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 2012-2021



출처: 통계개발원, 「약물로 인한 사망통계 분석」, 2023.

맺음말

최근 10년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이 약 2.8배 증가하고, 전통적인 마약류 유통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마약류범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하여 온 엄벌주의와 공급차단 전략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22년 세계약물보고서(World Drug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15~64세 인구 중 최근 1년 이내에 마약을 사용한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2억 8,400만 명으로 2010년과 비교할 때 약 26% 증가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체 마약류사범은 2014년 9,98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약 176.6% 증가하였는데, 비교기간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 세계 평균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약류범죄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전통적인 마약류 유통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는 그 유형에 따라 주요 생산국(혹은 제조국)과 소비국이 상이하므로, 마약류 사용은 전 세계 유통시장과 유통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전통적인 밀수 방식 이외에도, 비대면 거래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우편물, 국제화물 등을 통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인터넷(다크넷), SNS 등을 이용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접촉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다크넷을 통한 거래 중 약 91%가 마약류 거래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대검찰청, 「2022년 마약류범죄백서」). 특히 마약류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해 인터넷 사용에 친숙한 일반인들의 마약류 구입이 용이해졌다. 이에 국내 형사사법기관이나 식약처, 관세청 등 마약류 관련 기

관에서는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비대면 중심의 마약류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마약류 반입·유통경로가 다양화·지능화되고, 신종 마약류가 출현하는 등의 문제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외국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마약류 노출위험이 증가하는데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었으나, 최근 10년간 점차 마약과 대마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마약류범죄 행위유형 면에서도 예전에 필로폰 중독자가 대부분이던 이유로 투약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과 달리 공급사범, 그중에서도 밀경(密耕)과 밀수(密輸) 행위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허가를 받은 의료 목적의 진통제,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사망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는데, 펜타닐은 몰핀보다 약 100배의 효과가 있는 강력한 의료용 마취제이나, 밀조된 펜타닐과 그 유사체가 알약과 가루형태로 유통됨으로써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2017년 2만 8천 명이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연예인 프로포폴 오남용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또는 불법사용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8배나 증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국 약 4만 개 의료기관, 약 10만 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고, 국민 3명 중 1명 정도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상황으로(마약류대책협의회 내부자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확대 문제에 정책적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스위스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마약류범죄 비범죄화 경향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정책 마약류범죄 단속 중심의 정책, 즉 마약류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마약류 사범 특히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으로 마약류 투약사범을 전문치료병원에서 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보호제도나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감호제도 등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마약류범죄자는 여타 범죄와 달리 중독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재발 혹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치료 프로그램 개편, 사회복귀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